

북한의 러시아 파병 · 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4808
----------	------

발의연월일 : 2024. 10. 21.

발 의 자 : 나경원 · 고동진 · 박준태
송언석 · 박수민 · 박성민
이인선 · 김 건 · 김민전
박상웅 · 서지영 · 안철수
이종배 · 최수진 · 김대식
조지연 · 이종욱 · 조정태
인요한 · 김성원 · 박덕흠
주호영 의원(22인)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대남 군사적 위협 · 도발 고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대규모 병력 파병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며, 불법적인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서울 작전 지도를 펴놓고 물리력 사용을

공언하고 남북 연결 도로·철도 폭파, 대남 오물풍선 테러, 무인기 침투,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는 등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이러한 행위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무모한 도발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결정을 규탄하고 기존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결의를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유엔(U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군사 협력을 차단할 것을 촉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정보력을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대남 군사도발로 인한 안보위기에 대해 초당적 협력과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안전과 국가안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여야가 함께 초당적으로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제안이유

최근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됨. 이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며 불법적인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임.

더욱이 북한은 서울 작전 지도를 펴놓고 물리력 사용을 공언하고 남북 연결 도로·철도 폭파, 대남 오물풍선 테러, 무인기 침투,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는 등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음.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무모한 도발임.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도발행위와 러시아 파병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가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함. 또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결정을 규탄하고 기존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결의를 채택할 것을 촉구함.

또한 정부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유엔(U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군사 협력을 차단해야 함은 물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정보력을 제고해야 함.

아울러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대남 군사도발로 인한 안보위기에 대해 초당적 협력과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여야가 함께 초당적으로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이에 본 결의안을 제안함.